

# 미등록 사암·교육 수계 제한 우려

## 선학원 '조계종 종지종통' 조항 삭제, 파장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인 '종지종통 봉대' 조항 삭제라는 강수를 뒀다.

1921년 석왕사 안국동 포교당 보살계단에서 만공 스님이 주창한 "조선사람끼리 운영하는 선방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설립된 선학원은 근대불교의 산실로서 조계종의 모체이기도 하다. 결국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아닌 한 뿌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조계종과 선학원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선학원 정관 부칙에 참림이사 명단이 삭제되고 이사 등 임원은 선학원 분원장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이 생긴 것도 이 시기부터다.

2002년 3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조계종은 선학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선학원은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복원시켜 조계종 소속임을 분명히 했다. 법인법에 반발한 선학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조계종과 선학원은 사실상 갈등 양상에 다시 접어들었다.

이번 갈등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지종통을 부정하

만류 조계종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종단 사찰법에 의한 제재다. 대부분의 선학원 분원들이 사찰법에 따라 미등록 사실사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분원장 스님들은 최대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분원들 미등록 사암 분류되면

### 승적 및 도제 양성 차질 예상

### 관계 악화 시 파장 적지 않아

### 대화로 해결...출가정신 실천

또한 현재는 합의 사항으로 풀려 있는 선학원 스님들에 대한 교육·승적 및 수계 권리 제한 역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의 제자 스님들은 중앙승가대, 강원 등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으며, 스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 역시 받지 못하게 된다.

분래 한 뿌리인 종단과 법인이 갈등보다는 대화와 화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



(재)선학원은 4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법 제정에 따라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의 조항이 삭제됐다. 사진은 이사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원 이사 승운 스님과 재우 이사 현진 스님이 결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근대불교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연구 교수는 "한국불교 정화의 산실인 선학원의 역사성과 이로운 특성 등을 종단에서 감안해야 하고, 선학원은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원래적인 이야기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법 제정을 주도한 조계종 중앙종회

부위원장 법안 스님은 "법인법 제정으로 분원장 스님들의 제한됐던 권리가 많이 해소됐다"며 "그럼에도 문제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감정적 대응은 옳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선학원도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사찰 걸으며 봄을 만끽하세요

### 전국 사찰, 트레킹 템플스테이 풍성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트레킹 템플스테이'가 시작된다.

불교전통 수행무술인 '선무도'로 국내 외에 널리 알려진 경주 골굴사는 4월 한 달간 봄 향기 물씬 풍기는 생태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인다. 눈두렁에서 달래, 숙, 냉이를 캐고, 진달래 화전을 나누어 먹으며 풍류를 즐기는 시간과 함께, 토 함산과 함월산, 아부천 트레킹 및 한지마을을 찾아 경주의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

볼 예정이다.

강원도 속초 신흥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달라집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연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잠시 휴식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설악산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를 찾아 물소리 듣기 참선을, 또 봄눈이 녹아 흐르는 소리를 통해 '정음 체험'을 한다.

강원도 강릉의 현덕사 역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금강 꽃길 트레킹'을 선보인다. 신종일 기자



봄맞이 트레킹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 거리기부도 이제 신용카드로

### 날마다좋은날·신용카드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5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날마다좋은날이 봉축기간 진행되는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마련됐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2011년 4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회사들이 나눔 문화 확산과 균형있는 사회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날마다좋은날과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 가능한 디지털모금함을 전국에 배포하게 된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두 단체의 만남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5월 가정의달과 부처님 오신날 기간에 나눔과 희망의 씨앗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형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장(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쉽고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신용카드 업계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공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제22회 행원문화상'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역경과 예술로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역경분야는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과 각종 저술 등 중요한 불교 관련 자료를 현대어로 번역한 인물로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예술분야는 불교사상을 토대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및 방송·연예 등의 분야에서 포교에 이바지한 인물이어야 한다.

후보 추천은 본인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6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재단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runner333kr@naver.com)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8월 중순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한편, 행원문화재단은 문화상을 통해 500여 명에게 총 6억7000여 만 원의 장학금과 시상금을 지급했다. 노덕현 기자

## 불기 2557년 연등 축제는 'CLEAN'

### 지난해 봉축 쓰레기만 15t...축구장 하나 채워

2012 연등회 연등축제기간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15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불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 조사결과 종로구청에 집계된 지난해 연등회 연등축제와 봉축법요식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15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마대 900개 분량으로 축구장 하나를 채우고 남는 양이다.

현재 연등회 연등축제에는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사참가 5만 명, 관람시민 13만 5000명 등 총 20여 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늘어나는 인파만큼 쓰레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관계 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서울 불꽃축제와 같이 비슷한 규모의 축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불꽃 축제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30t에 달해

축제 이후 인근 주민과 담당부처 직원들이 새벽까지 쓰레기 치우는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등회 연등축제 또한 30여명의 청소인력이 투입돼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통통제

### 분리수거 되지 않아 전량 소각해

### 불자들의 성숙한 의식 필요할 때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봉축위원회 측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축위 관계자는 "연등의 경우 참가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거나 참가 단체들이 수거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들에게는

준비모임을 통해 부스 설치 등에 앞서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수거한 쓰레기를 전량 소각된다는 점이다. 고동성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30여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데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떡다 남은 음식물과 종이, 페트병 등이 뒤섞여 소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두환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자연환경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 등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생명존중과 화합, 평화 등 불교정신을 펼치는 축제이니 만큼, 불자들이 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축제로 거듭나려면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6일간의 깨달음 금강단식

# 손에 잡히는 참선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완전무결한 본래자신으로 돌아감이 깨달음이다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속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 1일최고3kg 1개월25kg

**참선** 수련회 6일 4월19금~24 5월 3금~ 8 선 회 3일 4월19금~21 5월 3금~ 5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단식**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1644-5266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수연암 대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 대법회

귀의삼보 하옵니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사년 봄날에 제방의 대덕큰스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수연암 대법당 낙성 및 부처님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하여 공사가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수연암 불사를 증명하시고 법석을 빛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니다.

- 일시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 (음, 3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전남교구 수연암
- 문의 : 수연암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64-2) ☎ 061)762-0472, 011-606-0473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041)566-2277~8

주관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주최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전남교구 원장 지현 수연암 주지 수연 합장